

보도시점 2023. 6. 23.(금) 17:20 배포 2023. 6. 23.(금) 17:20

## “문화의 힘으로 한국-베트남 관계의 새로운 지평 열려”

- 박보균 장관, 응우옌 반 흥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 베트남 순방 계기로 양국 문화협력을 확장해 나가겠다”는 포부 밝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과 응우옌 반 흥(Nguyen Van Hung)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6월 23일 낮 하노이 대우호텔에서 회담을 열었다. 이번 회담에서 양 장관은 ‘한국어 학습자와의 대화’, ‘한-베 문화 교류의 밤’ 등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국민 방문에서 큰 성공을 거둔 양국 간 문화교류 협력을 뒷받침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 ■ 문화의 힘으로 미래세대 연대 강화 약속

박 장관은 회담에서 “어제 문체부가 주최한 한국어 학습자와의 만남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한국어를 가르치는 전 세계 세종학당 84개국 248개소 중 베트남에만 약 10%에 해당하는 23개소가 자리하고 있다. 세종학당의 내실화, MZ청년 예비교원 파견, 베트남 한국어 학습자들의 한국방문 기회 확대 등으로 한-베 양국 미래세대 간 교류의 지평을 넓혀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 장관은 “어젯밤 문체부가 준비한 ‘한-베 문화교류의 밤’ 행사에서 K팝과 V팝이 함께한 무대에 윤석열 대통령이 강렬한 인상을 받고 감동을 표시했다. 양국 문화교류를 더욱 발전시키라는 지시를 내렸다.”라고 전했다.

한편, 박 장관은 흥 장관에게 “윤 대통령이 베트남에 오기 전 프랑스 파리에서 ‘2030 엑스포’ 유치를 위한 PT를 하셨다. 엑스포 전담 부처인 베트남 문체부의 관심과 적극 지원을 부탁드립니다.”라며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지도 요청했다.

따로 붙임 현장 사진

담당 부서	콘텐츠정책국 문화산업정책과	책임자	과장	윤양수 (044-203-2411)
		담당자	사무관	김성열 (044-203-2422)

국민과 함께하는  
**세계일류 문화매력국가**

대한민국  
**지책브리핑**

